

코리안리서스

익산시, 국회의원 당선자 정책간담회 개최

익산시가 18일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 만드는데 협력과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춘석 국회의원, 조배숙 당선인과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정현을 익산시장, 이지영 부시장, 이춘석 국회의원, 조배숙 당선인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간담회는 내년도 국비확보 핵심 사업을 중점 건의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확보와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논의하는 자리가 됐다.

시는 이날 안전보호 융복합 제품산업 육성사업, 익산고도보존 육성사업, 익산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왕궁 현업축사매입 및 생태복원사업, 소스산 업하천 사업추진 등을 건의했다.

이춘석 국회의원, 조배숙 당선인은 새롭게 시작하는 익산시의 발전을 위해 현안사업 해결에 모든 힘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그동안 익산시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던 현안사업과 부족했던 부분들에 대한 다양한 의견제시와 질의답변을 이어갔다. 시 관계자는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으로 현안해결을 위해 나서 줄 것을 건의했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해경 해·수산업 종사 외국인 인권보호 위해 실태점검 나서

해경이 해·수산업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실태점검에 나선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장인식)는 오는 20일까지 군산보내 안강방 어선 및 선원숙소 등을 방문해 외국인선원들의 인권유린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국내 해·수산업계는 내국인 선원부족에 따른 대체 인력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현재 군산 관내에는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등 6개국의 외국인 근로자 280여 명이 선박과 양식장에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노무계약 불이행, 임금체불, 폭행과 갑금 등 인권유린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해경은 이번 점검을 통해 외국인 고용 사업장 선박, 영업 도사지역 양식장 등을 현장 방문해 사업주와 분리된 공간에서 개별 및 단체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폭언 폭행 등의 인권유린 사례가 현장에서 진술되거나 정황이 포착 될 경우에는 바로 수사에 나설 계획이며 외국인 선원들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고용주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 외국인 선원들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외국인 인권보호센터 등에 대해서도 홍보할 계획이다.

/군산=문정근기자

익산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출산·사고·질병 등으로 영농 활동 곤란 농업인 대상 인건비 지원

익산시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가의 일손을 덜어주기 위해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사고 및 질병 농가를 위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으로 인해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180일 기간 중 60일 한도로 1일 40,000원의 90%(36,000원) 수준을 지원한다.

사업을 희망하는 여성농업인은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 하면 되며,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여성결혼이민자도 농업인의 배우자임을 확인하여 지원가능하다.

이와 함께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 및 통원치료 등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경영체(법인 제외)로 경영주 및 경영주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연간 10일 한도내에서 도우미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영농도우미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영농도우미의 수혜연령 제한이 폐지되어 8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요건은 사고로 2주이상 상해진단을 받은 경우, 질병으로 3일이상 입원한 경우, 최근 2년내 4대 중증질환 진단을 받고 2회 이상통원치료를 받았거나 받아야 하는 농업인으로 병·의원의 확인서가 있으면 신청가능하다.

영농 대행한 도우미의 인건비는 1최대 6만원까지 지원하며 인건비의 85%인 51,000원은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15%는 자부담이다.

이용을 원하는 농가는 증명서류(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의사소견서 등)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하면 되고, 신청기간은 입원 시에는 입원중 또는 퇴원 후 30일 이내, 진단 시에는 진단기간 내 통원치료 시에는 통원치료 기간 중 또는 통원치료 후 14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

/익산=장왕원기자

군산시민단체, 중앙고 예산지원 중단 촉구

“재정 자립을 해야 하는 자사고에 특혜 주는 것” 주장

군산지역 1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군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군산교육시민사회단체공동대책위원회가 자율형사립고인 군산중앙고등학교에 대한 군산시의 예산지원 협의체결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난 17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군산시가 군산중앙고에 연간 1억원씩 2년 동안 총 2억원의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며 “학교를 자율적으로 운영 하는 대신 재정 자립을 해야 하는 자

사고에 이종의 특혜를 주는 것으로 군산시는 교육 관련 예산을 공교육 정상에 맞게 집행하라”고 밝혔다.

특히 “군산시의 예산지원은 학교 재정 부족에 따른 운영상의 어려움을 줄임 목적으로 군산시가 군산중앙고와 임의의 협약을 맺은 뒤 해마다 몇천만원을 건네준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르면 자사고는 학교교육과정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군산중앙고는 군산시로부터도 최근 5년간 연간 1억원씩 총 5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지원받아 학력신장프로그램과 진로활동프로그램, 체험활동프로그램 등 일반적인 교육 활동 분야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산시가 군산중앙고에 지원된 5억원과 협약 연장을 통해 다시 2년동안 지원하려는 것은 누가 봐도 특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시, 내일까지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 심사



해외 선진문화를 체험하고 어학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 심사’가 19일(중국)과 20일(영국) 2일만에 걸쳐 군산시청에서 실시된다.

군산시는 전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글로벌 우수인재 발굴 육성을 위해 지난 3월 14일부터 3월 25일까지 군산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2016 글로벌체험 해외연수 장학생’ 신청서를 접수했다.

총 101명(초57, 중44)을 선발하는 이번 해외연수 장학생 선발에는 412명(초280, 중132)이 신청해 평균 4.0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편입에서 최종 선발되는 합격자는 초·중학생은 6주간, 대학생은 25~48주간의 해외연수 혜택을 받게

되며 합격한 국가(캐나다·호주·뉴질랜드·중국)에서 ESL 4주와 정규수업 2주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연수경비는 일반 초·중학생 영여권은 연수경비의 60%, 중국은 80%, 대학생은 1천만원 한도에서 차등 지원

/군산=문정근기자

단독 경보형 감지기 화재피해 줄여

익산소방서(서장 강원석)는 “최근 익산시 미등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단독경보형감지기 작동으로 인명피해 등 화재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전했다.

화재가 발생한 주택은 한식 벽돌조 기와집으로 다른 주택이 밀집해있어 연소 확대 우려가 많은 곳이었다. 집주인 K(71세)씨는 보리차를 끓이기 위해 몸을 올려놓고 TV를 보다가 잠이 들어, 잠시 잠을 자던 K씨는 주방에 설치되어 있던 단독경보형감지기 경보음으로 화재발생을 알게 됐고, 집안에 있던 소화기 2대를 사용하여

초기진화를 시도하고 밖으로 대피했다. 이 화재로 소방서 추산 88만여원의 재산피해를 입었지만 주택용 소방시설 덕분엔 더 큰 화재로 이어지지 않았다.

강원석 서장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발생 시 내장된 음향장치에서 경보음이 발생해 신속한 집안에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로 건설회사 등에 설치해 쉬운 만큼, 홀몸노인가구 등 주택에서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며 “내 가정의 안전을 위해 주택소방시설을 꼭 설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장왕원기자



중국 레윈강시 대표단 군산 새만금순단 방문

중국 장수성(강소성) 레윈강(연운항)시 상계룡(項營龍)시장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상호 우호교류 증진을 위해 지난 17일 1박2일 일정으로 군산을 방문했다.

18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새만금순단 방문지를 방문해 미래 품목아 경제중심지로 도약할 새만금의 미래 발전상을 확인하고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이어 문동신 군산시장을 예방해 국제 우호도시 관계 증진 및 상호 협력방안 확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군산시는 지난 2011년 5월 레윈강시와 우호도시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활

발한 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양성세 당시를 포함한 레윈강시위원회 대표단 일행이 군산을 방문해 우호교류 실무협의서를 체결하는 등 양 도시간 교류협력 범위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중국 레윈강시 관계자들의 이번 군산 방문을 계기로 향후 양 도시간 우호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겠다”며 “이번 교류를 통해 새만금순단을 중심으로 한중 경제교류 협력사업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기자

익산 예비사회적기업 미들채, 함라에 신사옥 준공

익산시 예비사회적기업 중 하나인 농업회사법인 미들채가 지난 18일 함라면 신대리에 새 동지를 틀고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정현을 시장을 비롯해 황호열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용용 경제통산진흥원장, 남궁기동 고구마사랑중앙연합회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함라면 신대리에 위치한 신사옥은 13,369㎡의 넓은 대지에 3,642㎡의 공장규모를 갖추고 하루 이이스군고구마, 구운단호박 10톤을 생산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또한 굵은 기계오븐 6대, 냉동창고 5개, 급속냉동고 1개 등 최신설비를 갖추고 회사의 급속한 성장을 예고했다.

미들채(유)에서 개발한 하루 한 끼 군고구마, 하루 한 끼 주은 단호박은 소포장을 통해 휴대성과 냉동보관을 통해 저장성을 높여 기호에 따라 차갑게 또는 전자레인지에 간단히 데워서 먹을 수 있어 바쁜 현대인들에게 편리한 제품으로 지속적인 러브콜을 받고 있다.

/익산=장왕원기자

seeseri Clean UP↑

문제는 싱크대다

Why? “씨서라”를 사용해야 하는가

- 싱크대 배수통 오래 써면 딱딱하고 막힘
- 스물 ~ 스물 올라오는 음식물 냄새 불쾌한 냄새
- 오래 사용한 싱크대 배수구를 소독하고 싶다면
- 믿을 수 있는 국산, 특허 제품
-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설치, 사용 가능

(주) 코포스

청결한 주방문화를 창조하는 기업

각 지역 총판 및 딜러모집 (여성에게 유리한 사업입니다.)

광고 게재기간동안 공동구매시 설치비 30%할인 행사합니다.

코포스에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께 “새로운 형태의 창업”을 제안합니다.

홈페이지 [www.seeseri.com](http://www.seeseri.com) / [www.씨서리.com](http://www.씨서리.com)을 방문하시면 상품정보, 각종동영상, 자세한 자료, 사업의 비전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담: 이병기 010-5628-1256. [see8709@naver.com](mailto:see8709@naver.com)

“씨서라” 실제 설치!

청소액 [팩스]

팩스: 010-5628-1256

4인용 홀이 배수통 1개 4인용 배수통 2개 8인용 배수통 3개 12인용 배수통 4개

4인용 배수통 1개 4인용 배수통 2개 8인용 배수통 3개 12인용 배수통 4개

4인용 배수통 1개 4인용 배수통 2개 8인용 배수통 3개 12인용 배수통 4개

4인용 배수통 1개 4인용 배수통 2개 8인용 배수통 3개 12인용 배수통 4개